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심 정 은 · 고 애 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Korean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as Related to Self-Consciousness and Weight Control Practices

Jeongeun Shim · Aeran Koh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7. 8. 1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the effects of age and sex of Korean adolescents on the psychological variables(body attitudes, public/private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weight control practices, and clothing behaviors, and 2)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variables and weight control practices, and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on clothing behaviors in the adolescent' groups classified by sex and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wo factors of body attitudes were identified: Body-shape consciousn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Four factors of clothing attitudes were identified: Clothing interest/dressing for others, Clothing exhibition, Dressing for self, and Psychological clothing-dependence. 2)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sex on all of the research variables. Age was found to have effects on Physical attractiveness, self-esteem, public/private self-consciousness, Clothing exhibition, and Psychological clothing-dependence. 3)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variables and weight control practices, Body-shape consciousn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hysical attractiveness in all groups. Also, Body-shape consciousness had effects on weight control practice in all subject groups. 4) Public self-consciousness had direct/indirect effects on the Clothing interest/dressing for others in all subject groups. Private self-consciousness had direct/indirect effects on dressing for self in high school boys and girls. Body-shape consciousness had indirect effects on Preference for up-to date style in male college students group, whereas weight control practices had effects on the Preference for up-to date style in female college students group. Self-esteem was found to have the effects on cloth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groups. Among clothing attitude factors, Clothing exhibition had distinct

effects on the Preference for up-to date style in all subject groups, and Clothing interest/dressing for others had effects on Clothing exhibition and Psychological clothing-dependence in high school boys and girls.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인간발달의 과도기로서, 다양한 발달과업으로 인해 독특한 문제와 특성을 나타내며,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이다¹⁾. 또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사회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기자신에 대하여 여러면에서 평가하고, 또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²⁾. 특히 이 시기의 외모는 친구나 이성과의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이는 이 시기의 자의식 발달과도 관련되며, 외모에 대한 만족·불만족은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 되나, 부적당한 의복을 입었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용모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신체의 결함이나 불만감을 극복하기 위해, 즉 외모 향상을 위해 의복을 사용하며³⁾, 자의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러한 청소년기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체형 및 체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 자신의 체형보다 크게 추정하게 됨으로써, 부적절한 섭식 행동⁶⁾ 및 무모한 체중조절행동으로까지 이어져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과정 중 사회성 향상과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신체태도,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의 수준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변인들이 자기/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관심, 의복의 과시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및 유행의복을 선택·구입하려는 행동을 포함하는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태도, 자기 및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와 의복행동으로 표현되는 이들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신체태도, 자의식, 자아존중감, 체중조절행동 및 의복행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 둘째, 청소년들의 신체태도, 자의식, 자아존중감 및 체중조절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셋째, 청소년들의 신체태도, 자의식, 자아존중감 및 체중조절행동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와 신체태도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12~13세에서부터 20~21세까지를 말하는데⁸⁾, 이 시기를 다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 전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기도 하며⁹⁾, 청소년 초기와, 중기와 후기를 합쳐서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기도 한다¹⁰⁾.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현황은 입시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교생활 패턴 및 환경도 크게 다르므로, 청소년기의 연령에 따른 사고 및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를 전기, 중기, 후기의 세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며, 신체의 건강 여부, 결함의 유무와 신체적 우열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된다⁹⁾.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11,12)}, 마른체형을 지향함을 나타내었다¹³⁾.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갑작스런 신체성장에서 나타나는 체중증가를 겪으면서, 이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자신이 이상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신념을 수반하며, 신체 상태에 대한 잘못된 지각

은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 등의 섭식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¹⁴⁾.

또한 Higgins 등¹⁵⁾은 체중감소행동은 실제적 자신의 모습과 타인에게 보여지고 싶은 자신의 모습과의 불일치와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실제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이어트 행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살이 쯤가봐 음식을 먹은후 부담을 느끼고 칼로리를 의식하게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체중조절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가 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신체매력성이나 체형에 관심을 나타내는 신체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외모 관리 형태인 의복행동과 관련되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타인의 반응을 고려한 의복행동이나 의복으로 자신의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신체매력성을 과시하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신 유행 스타일이 체형을 강조하는 의복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볼때, 이러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는 유행 의복을 선택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기와 자의식

자의식 이론은 자아의 관심이 외부적 환경이나 내부적 자아의 면으로 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Duval과 Wicklund의 자의식 이론에서 도출되었으며¹⁷⁾,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대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의복착용과 태도에 관심을 갖는 특성이며, 사적 자의식은 자아의 개인적인 은밀한 면으로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에 대해 반성적이며 자기 자신의 신체적 과정과 기분을 점검하고 자신에 대한 공상과 관심을 갖는 특성을 나타낸다¹⁸⁾.

자의식 정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에서 공적, 사적 자의식 모두 높으며, 이는 이 시기가 내적, 외적으로 자신을 많이 생각해보는 청소년기의 연령이기 때문이다¹⁹⁾. 또한 사적 자의식과 자아중심성은 높은 정적 상관관을 보이며²⁰⁾, 또한 공적 자의식은 여

자가 남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²¹⁾. 고애란과 김양진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자의식이 높았으며, 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자신의 내적인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외적으로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높았다.

자의식과 의복 변인과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Miller 등⁴⁾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공적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의복변인(유행의사선도력, 의복관심, 의복동조성, 자신의 유행성 지각, 실제의 유행성)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의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공적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의복을 사회적 불안울 줄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볼 때, 자아의 공적 측면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신체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관련을 가지며, 자아표현은 의복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 및 내적 감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자기위주로 의복을 착용하거나 의복을 기분전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관계의 증가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므로, 자신의 표현인 의복에 관심을 보이고 타인을 의식하여 의복을 착용하려는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소년기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라 정의되며²²⁾, 자아 개념보다 한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 그 의미에 있어서 평가적, 감정적 요소가 내포되어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²³⁾.

사람들이 타인과 연관시켜 자신을 평가할 때 사회적 비교가 발생하며, 그 결과로써 자아존중감의 감정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²⁴⁾. Bloch와 Richins²⁵⁾는 Festinger의 사회적 비교이론을 외모 평가에 적용하였는데,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준거집단 내의 외모의 기준을 관찰하고 다이어트, 화장품 사용 등의 외모관리 행동과 연합시키고, 이를 매력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로 인한 자아존중감 향상과 사회적 이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

대사회의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그 영향으로 미디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비교를 제공한다²⁶⁾. 즉, 매스미디어나 준거집단을 통한 외모와 신체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고, 이는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되며, 외모 향상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체중조절행동이나 의복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Mable 등²⁷⁾의 연구에서도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선재²⁸⁾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외관 및 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자기확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의복에 좀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순수와 윤학자²⁹⁾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전반적인 자기평가의 결과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에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신체태도 및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인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기는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한 의복착용이나, 의복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행동, 인정받기 위하여 의복에 의존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문항들과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태도는 전반적인 자신의 체형 및 외모, 체중을 의식하는 태도와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보는 정

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Ben-Tovim과 Walker³⁰⁾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19문항을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의식 측정 문항은 Fenigstein 등¹⁸⁾이 개발한,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에 관한 각 7문항씩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 문항은 Rosenberg²²⁾의 10문항을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 = .84$ 로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행동에 관한 설문은 체중인식 및 체중조절 관련 행동에 관한 7문항으로, Kagan과 Squires³¹⁾의 6문항과 연구자가 작성한 1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신뢰도 검사 결과 $\alpha = .89$ 로 높게 나타났다.

의복행동 중 의복태도 문항은 자기/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관심, 의복의 과시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측면을 포함하며, 선행연구^{32~37)}에서 사용한 문항을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한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유행의복선택행동 문항은 실제 유행하는 의복의 선택, 구입 고려에 관한 문항으로, 연구자가 96 S/S 유행 경향을 나타내는 잡지, 카탈로그 및 TV 연예인들의 의복에서 선택하였다. 유행의복으로서 남녀가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복으로 상의는 몸에 꼭 붙는 셔츠, 매끄럽고 팽팽이는 블라우스, 하의로는 통이 매우 넓은 힙합바지류, 그 외 원색 혹은 눈에 잘 띄는 색이나 무늬가 대담한 옷으로 유행의복 4종류를 문항으로 제시하였고, 신뢰도 검사 결과 $\alpha = .62$ 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으로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에 해당하며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은 1996년 9월 12~24일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남학생 166명, 여학생 181명,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57명, 여학생 162명, 대학교 1, 2학년 남학생 151명, 여학생 154명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및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빈도, 평균 및 백분율, 직교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inegen criteria, Varimax Rotation) 과 신뢰도 검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및 Lisrel(공분산구조분석 :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연구변인의 하위요인 추출

가설 검증에 앞서 신체태도, 자의식, 의복태도를 몇개의 요인으로 요약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에 대해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요약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과 요인분석시 한 문항이 여러 요인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요인 부하량을 갖는 문항을 제외하였다.

신체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두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부하량이 낮고 다른 문항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3문항이 제외되었다. 요인 1은 체형의식 요인으로 체중과 비만도 지각, 섭식 관련 태도 등 자신의 체형에 대해 의식을 하는 13문항이 이에 속하며, 요인 2는 신체매력성 요인으로, 이성으로부터의 관심, 외모에 대한 3문항들이 이에 속한다.

자의식의 요인분석 결과, 총 14문항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을 제외한 13문항이 두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1은 공격 자의식에 관한 7문항이었으며, 요인 2는 사적 자의식에 관한 6문항이 포함되었다. 사적 자의식의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³⁶⁾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는 청소년기의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내적 사고에 대해 반응을 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Fenigstein 등¹⁸⁾이 개발한 사적 자의식 문항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좀더 잘 적용되기 위해 앞으로 사적 자의식 측정 도구의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의복태도 문항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 총 네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여러 요인에 대해 낮은 부하량을 나타낸 4문항은 제외되었다. 요인 1은 의복관심/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요인으로, 의복과 유행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타인들이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에 관한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2는 의복의 과시성 요

<표 1> 연구변인의 요인분석 결과 요약 N=971

요인명		고유근	신뢰도	설명력
신체태도	요인 1 : 체형의식 나는 더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5.68	.72	34.21
	요인 2 : 신체매력성 나는 때때로 내가 신체적 매력이 있다고 느낀다.	1.04	.76	17.62
자의식	요인 1 : 공격 자의식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신경이 쓰인다.	5.47	.84	33.03
	요인 2 : 사적 자의식 나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3.73	.67	14.11
의복태도	요인 1 : 의복관심/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외모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옷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6.73	.83	29.65
	요인 2 : 의복의 과시성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한다.	4.21	.65	13.93
	요인 3 :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조차도 옷을 잘 입으려고 노력한다.	3.39	.68	5.72
	요인 4 : 심리적 의복의 존성 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입어 기분전환을 한다.	2.47	.61	5.01

인으로, 남의 눈에 띄는 색이나 스타일의 의복착용 및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의복태도의 4문항을 포함하

었다. 요인 3은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요인으로 2분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4는 심리적 의복의존성 요인으로, 의복이 주는 느낌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거나, 의복을 통한 기분전환을 의미하는 2분항을 포함하였다.

2. 성·연령에 따른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및 체중조절행동, 의복행동 차이

1) 성·연령에 따른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차이

신체태도의 2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성과 연령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체형의식 요인에 대한 성의 주효과($F=303.27, p<.001$)와 신체매력성 요인에 대한 성($F=18.41, p<.001$)과 연령($F=8.95, p<.001$)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체형의식 요인은 남학생(2.20)보다 여학생(3.32)의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여학생이 자신의 체형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매력성 요인은 남학생(2.83)이 여학생(2.65)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2.64, 2.72, 2.86).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신체를 덜 매력적이라 지각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덜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9,11~1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학생은 청소년 초기에 남학생보다 갑작스런 체중증가 등의 더 많은 신체변화를 겪게 되어,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게 되며 또한 자신의 신체를 덜 매력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의식의 2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성과 연령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공격 자의식에 대한 성($F=24.42, p<.001$)과 연령($F=6.24, p<.01$)의 주효과와 사회적 자의식에 대한 성($F=5.48, p<.05$)과 연령($F=3.85, p<.05$)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공격 자의식, 사회적 자의식 모두 중간점수를 나타내었다. 공격·사회적 자의식 모두에서 여학생(2.95, 2.92)이 남학생보다(2.77, 2.86)보다 높았으며, 공격 자의식은 고등학생(2.9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생(2.85)이며 중학생(2.7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청소년기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인의 관찰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 기분 등의 내적사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선행연구^{4,96,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과 연령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성의 주효과($F=19.87, p<.001$)와 연령($F=11.94, p<.001$)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평균치를 보면, 남학생(1.99)이 여학생(1.89)보다 높았으며, 중, 고등학생(1.90, 1.90)보다 대학생(2.02)이 더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런 경향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기에서는 자신의 평가적 측면으로 외모가 중요하므로⁹⁸, 이 시기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급격한 신체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김순구와 박정순²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능력 등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2) 성·연령에 따른 청소년기의 체중조절행동 차이

체중조절행동에 대한 성과 연령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성의 주효과($F=339.65, p<.001$)가 크게 나타나 여학생(2.28)이 남학생(1.38)보다 체중조절행동 점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자신의 체중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체중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과 연령의 약한 상호작용효과($F=5.25, p<.01$)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에서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점수를 나타냈으며(2.45), 중학생과 대학생의 점수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2.21~2.20), 남학생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1.46)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비슷하게 나타났다(1.32~1.34).

3) 성·연령에 따른 청소년기의 의복행동 차이

의복태도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성과 연령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성의 주효과($F=45.86, p<.001/F=7.99, p<.01/F=17.43, p<.001/F=53.55, p<.001$)가 나타났으며, 의복의 과시성($F=7.72, p<.001$)과 심리적 의복의존성($F=6.04, p<.01$) 요인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모든 요인에서 여학생(3.34, 3.02, 1.95, 2.28)이 남학생(3.05, 2.90, 1.80, 2.02)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의복관심/타인

위주의 의복 착용은 높은 반면(3.05~3.34), 자기위주의 의복착용은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1.80~1.95),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청소년들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의복착용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복의 과시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05, 2.98, 2.85), 심리적 의복의존성은 의복의 과시성과는 반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2.10, 2.13, 2.24).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의복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의식한 의복행동의 경향을 보이고,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정도가 크고,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9,36,39,40}. 청소년 초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주의를 끌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 하며, 의복을 자기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이런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대인관계의 안정성과 더불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내적 사고 및 기분에 관심이 많아짐으로 인해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행의복선택행동에 대한 성과 연령의 이원변량분석결과, 성과 연령의 약한 상호작용효과($F=3.80$, $p<.05$)가 나타났다. 평균치를 보면, 여학생(2.97)이 남학생(2.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2.96)이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체형을 강조하는 유행의복에 더 많은 구입의사를 나타내며, 또한 청소년기에서는 사회적으로 외모가 중요하므로 포레 집단 및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위하여 유행 의복을 선택·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자에서는 중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84)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2.60), 대학생(2.3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여자에서는 중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고(3.07)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비슷한 점수경향(2.90~2.93)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학생이 성적인 면에서의 신체 성장이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의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및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

Lisrel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6개의 집단별 신체태도, 자의식,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와 체중조절 행동 및 의복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효과의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효과는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변인간의 직접효과의 범위는 $-6.79\sim4.14$, 간접효과의 범위는 $-4.56\sim2.89$ 로 나타났으며, 효과가 $-.50$ 이하나 $.50$ 이상인 경우에 의미를 두고 살펴 보았다. 모델 적합성을 나타내는 GFI(Goodness of Fit Index)는 0.62~0.64로 나타났다.

신체태도, 자의식,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중 6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자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체형의식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또한 모든 집단에서 신체 매력성은 공격·사적 자의식,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공격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또한 모든 집단에서 사적 자의식과 자아존중감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체형을 많이 의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낮으며, 자신의 신체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관찰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자신의 내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선행연구들^{27,2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신체태도, 자의식, 자아존중감이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체형의식은 체중조절 행동에 정적인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게 되므로 체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날씬해보이고자 하는 욕구로 체중조절 행동을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7,18,4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격 자의식은 의복관심/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정적인 직·간접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은 의복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의복을 착용하려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의복태도 하위요인 중 의복의 과시성이 유행의복 선택행동에 정적인 직·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상이 남도록 하기 위하여 유행의복에 관심을 보인다는 선행연구^{4,34,41,4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집단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난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 체형의식은 심리적 의복의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 자의식은 의복의 과시성에 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심리적 의복의존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초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로 외모가 중요하게 되므로 타인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체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 중·고등학생 집단에서 공격 자의식은 자아존중감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행의복 선택행동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 자의식과 다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비교를 통해 외모의 기준을 관찰하고 자신의 매력성 증가와 자아존중감 향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잊점을 얻기 위해 외모를 향상시키는 의복을 선택하려 한다는 Festinger⁴⁵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남녀 고등학생 집단에서 사적 자의식은 심리적 의복의존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의 내면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기분전환 등의 이유로 의복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29,37}와 일치하였다.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 체형의식은 공격 자의식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체형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체형의식은 유행의복 선택행동에 직접적으로는 부적인, 간접적으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체형을 의식할수록

체형을 강조하는 유행의복을 선택하지 않으며, 체형의식이 다른 심리적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자신의 체형 및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유행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적 자의식이 심리적 의복의존성을 제외한 의복행동 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는데, 사적 자의식과 다른 심리적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을 매력적이라 보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사람은, 의복에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한 의복착용 태도를 보이며, 의복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태도를 보이며, 최신 유행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²⁸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남자 중·고등학생에 비해 사적 자의식의 영향이 커진 것은 연령에 따라 자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체중조절행동이 의복의 과시성과 자기위주의 의복착용에 부적인 영향을, 유행의복 선택행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체중을 의식하고 체중조절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복의 과시적 경향이 낮고 자기 기분에 따른 의복착용은 덜 하며, 유행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유행의복 선택행동에 미치는 부적인 직접영향과 정적인 간접영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에 체형의식, 신체매력성, 사적 자의식이 관련되면,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자기위주로 의복을 착용하려는 경향이 낮으며, 유행의복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변인간의 관계가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정적인 직접영향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아존중감이 유행의복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사람은 유행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²³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과정 중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태도, 자의식, 자아존중

감 및 체중조절행동의 수준과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의복행동으로 표현되는 이들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태도는 체형의식, 신체매력성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의식은 공적자의식과 사적자의식으로 구성되었고, 의복태도는 의복관심/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의 과시성,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심리적 의복의존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변인에 대한 성과 연령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성에 의한 주효과가 나타났고, 연령의 주효과는 신체매력성, 자아존중감, 공적·사적자의식, 의복의 과시성, 심리적 의복의존성에서 나타났다.

둘째, 신체태도, 자의식, 자아존중감과 상관계수와 이들 변인 및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체형의식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를 의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자기확신감이 낮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체중조절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성과 연령에 따른 6개 집단의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태도, 자의식, 자아존중감과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공적자의식은 다른 심리적변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면서, 의복행동에 직접·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로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며 의복을 착용하려 함을 의미한다.

또한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 사적자의식은 다른 심리적 변인과 관련성을 가지면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은 다른 심리적 변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면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 체중조절행동은 유행의복 선택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태도 하위변인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의복의 과시성이 유행의복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청소년기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얻기 위해, 혹은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복의 과시적 경향을 나타내고, 이런 의복태도로 인해 유행의복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의복관심/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이 의복의 과시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유행의복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런 의복태도가 다른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발달과정 중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이제까지 의류학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청소년기의 외모관리 행동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신체태도와 체중조절행동 변인을 포함하여 자의식 및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청소년기의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집단별로 규명하였으며, 의복행동으로 표현되는 이들의 사고와 감정 이해를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시적인 조사로 발달 전후의 흐름을 함께 알아볼 수가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의 성과 연령에 따른 심리적 변인, 체형에 관한 인식 및 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발달과정에 따라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종적인 연구와 성인기와의 비교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1) 장병림(1966).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 2) 박영남 외(1993). 고교생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 대구 YMCA 청소년 문제연구소.
- 3) 김양진(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고애란, 김양진(1996).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0(4), 667-681.
- 5) Miller, F. G., Davis, L. L., & Rowold, K. L. (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63-368.
- 6) 안소연(1995). 폭식 행동 집단의 신체불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7) 박혜순(1996). 여대생「몸매 콤플렉스」 심하다. 조선일보, 23507호-1996. 10. 9. 水, 39.
 - 8) Hurlock, E.B. (1978).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ha McGraw-Hill Pub Co., Ltd.
 - 9) 민영순(1979).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10) 윤진(1993). 청소년 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서원
 - 11) 구정화(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 -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12) Cash, T., Winstead, B. & Janda, L.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Body image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20(4), 30-37.
 - 13) 정재은·이순원(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 14) Higgins, E. T., Strauman, T., Vookles, J., Berenstein, V. & Chaken, S. (1991). Self-discrepancies and vulnerability to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946-956.
 - 15) Higgins, E.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16) 박명윤(1994). 청소년의 식생활과 건강관리. 오늘의 청소년, 88,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16.
 - 17) Buss, A.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W.H. Freeman.
 - 18) Fenigstein, A., Scheier, M.F. & Buss, A.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522-527.
 - 19) 김민수(1992). 성인여성의 자의식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오산전문대학교 논문집, 12, 487-511.
 - 20) Enright, R.D., Lapsley, D.K. & Shukla, D.G. (1980). Adolescent egocentrism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14, 687-695.
 - 21) 양운주(1993).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23) 김순구·박정순(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4), 305-313.
 - 24) Morse, S. & Gergen, K.J. (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 148-156.
 - 25) Bloch, P.H. & Richins, M.L. (1992). You look "Mah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and Marketing*, 9, 3-15.
 - 26) Rudd, N.A. & Lennon, S.J. (1994). Aesthetics of the body and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Special Publication*, 7, 163-175.
 - 27) Mable, H.M., Balance, W.D. & Galgan, R.J. (1991).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907-911.
 - 28) 이선재(1991).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173-187.
 - 29) 김순구·윤학자(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30) David I, Ben-Tovim & M. Kay Walker (1991). The development of the Ben-Tovim Walker body attitude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775-784.
 - 31) Kagan & Squires (1984). Instrument for practice. In Fischer, J. & Corcoran, K. (ed), *Measuring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2nd ed.) (pp. 461-463). New York: The Free Press.
 - 32) 김미영(1983).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 불만감과 관련 변인 연구 - 자아수용성과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이영운(1981).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유행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김규봉(1986). 성인여성의 과시욕구 및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Creekmore, A.M. (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e Experiment Station Project*,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 36) 이부희(1996). 남녀중고등학교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연구 -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Kwon, Y.H. (1991).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mood and self-consciousness on the selection of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4), 41-46.
 - 38)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개론(개정판). 서울: 교문사.
 - 39) Horn, M.J. & Gurel, L.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40) 장기숙(1984). 고교생의 의복행동과 창의성과의 관계 — 인천시 고교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임국이·김선효(1985). 청소년기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영양학회지, 18(3), 225.
- 42) 양승진(1986). 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과의 관계 연구 — 원주시 남·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27-35.
- 43) 이경손(1979).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4) 심소연(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과시 및 자울 욕구와의 상관연구 — 의복의 과시성, 유행, 교복 자율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5)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 7, 117-140.